

I: 나는 돈을 빌린 지금이후부터 M: 모두 단결하여 빛을 갈을 것이며 그러지 못할경우엔 F: 포로처럼 경제종속되어도 아무말 안하겠습니다.
O: 오! E: 이런! C: 숙대발 뿔개 같다 D: 다들 국내경제 육성부터 할것이...

Free style

이번주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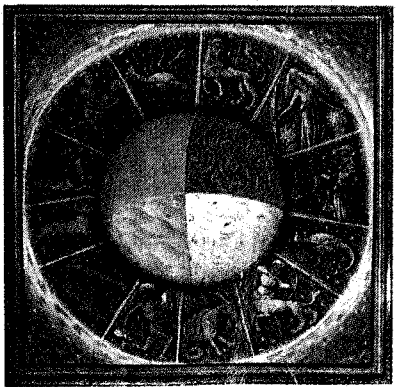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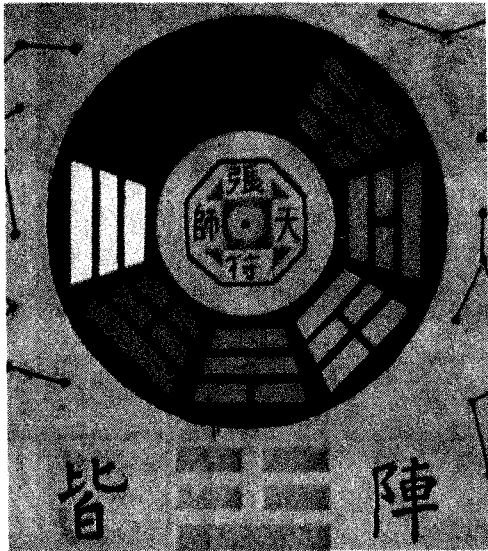
점
◇Free style은 이론화를 지향하기보다 감성으로서 깨어진 대학문화를 맞춰 나가려는 기획 테마신문입니다.
◇Free style의 격주 게재되는 인물포커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2

1997년 11월 24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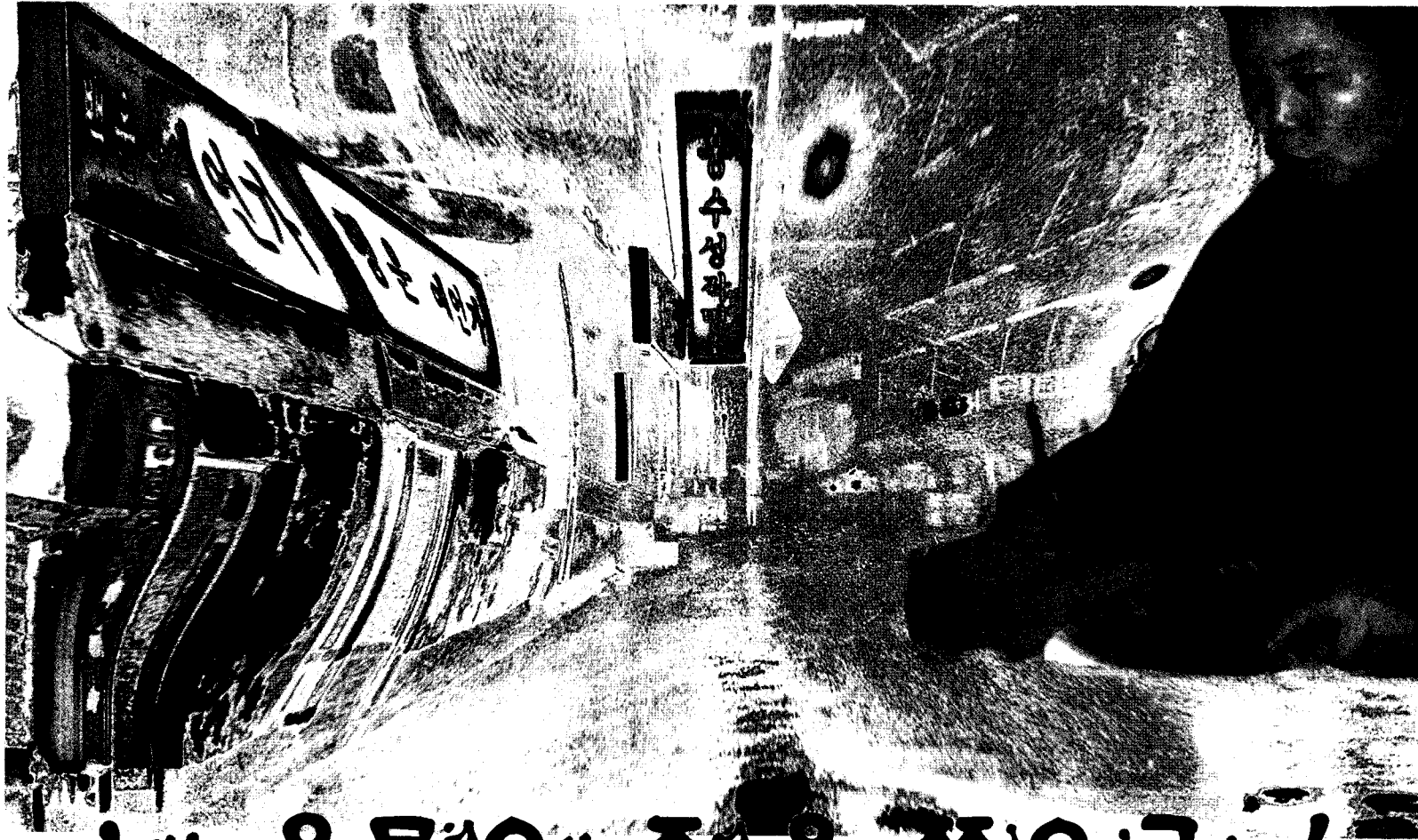
테마신문

대학주보



▲진경부적과 천궁12자리

“애, 너 점 쳐본 적 있니?”
“친구들하구 재미삼아 쳐본 적은 있는 것 같아. 카드점이라든가 뽑기점같은거, 아님, 사다리타기 정도? 근데 갑자기 웬 점 얘기니?”
“요즘 점치는 게 유행이잖아?”
“그래? 잘 모르겠는데. 점보는 사람이 많아졌나보지?”
“요즘 대학가 주변에서 점파가 얼마나 인기 좋은데.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할 정도래. 또, 미아리같은 데 있는 전문점집을 찾는 학생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더라.”
“아, 그러고보니 최근에 점이나 운명 등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된 것 같기는 하네. 서점에 갔더니 천기를 누설하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종류의 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았



네 운명에게 점을 찍어라!

어.”
“그뿐만 줄 아니? 관상, 손금, 성명학이나 역학, 점성술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 한통하면 운명을 알 수 있는 700 원세관원 서비스도 부지기수고, 태어난 년, 월, 일만 입력하면 사주를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나와 있잖아.”
“확실히 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 난 것 같기는 하네. 근데, 그렇게 점을 쳐서 어떤 점파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는거야?”
“점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잖아. 꼭 믿어야 할 필요도 없는거지. 어쩌다가 맞으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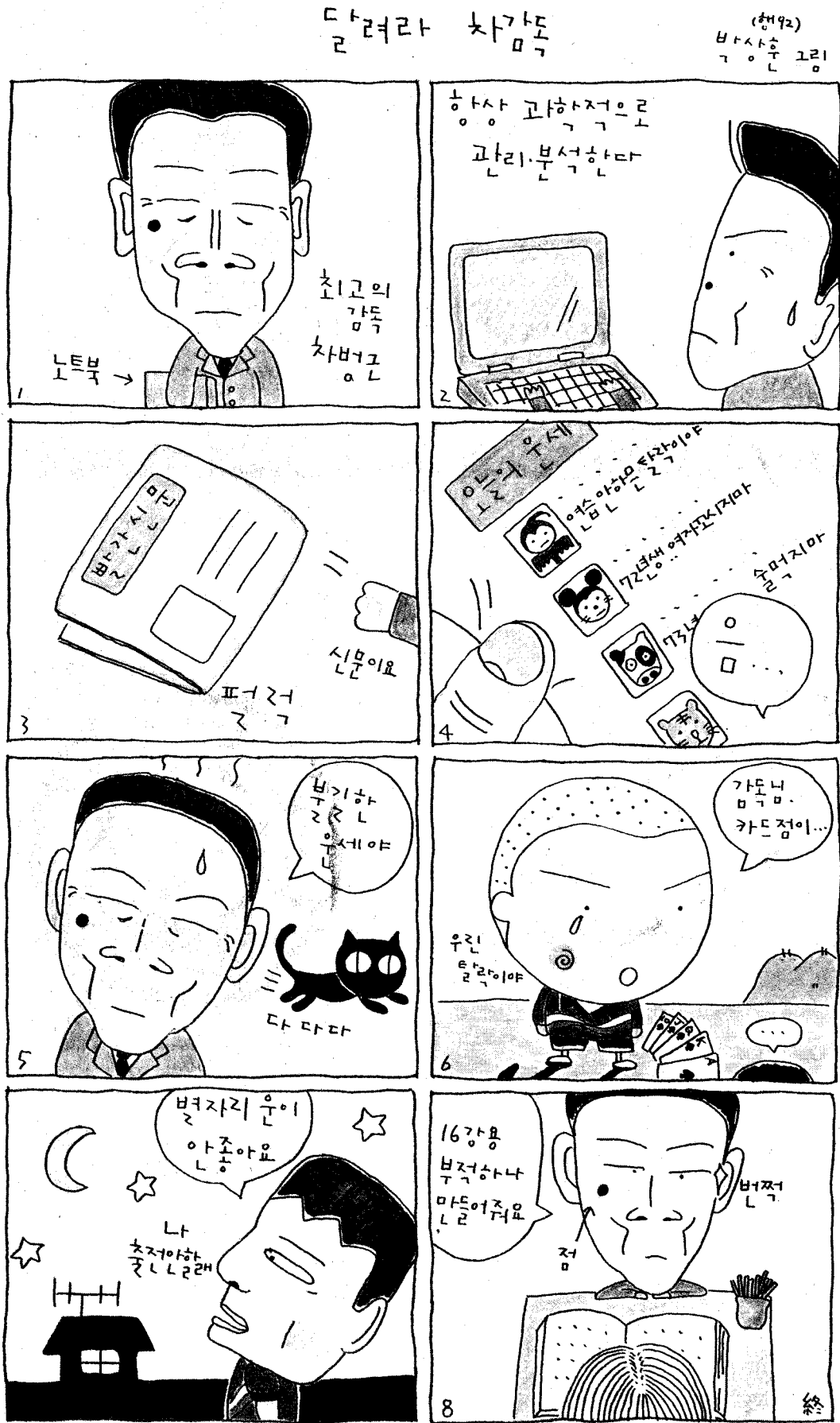
기하기도 하구 그래.”
“...”
점을 믿어도 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점괘에 집착하지 않고 단순히 오락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점만 믿고 미신일 뿐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기도 한다. 물론 점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힘의 발현으로 삶의 길을 알려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새 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는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부모는 궁합을 봤다. 서로가 배필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점치기 위해. 결혼에 적합한 날을 택하기 위해서도 점을 쳤다. 결혼한 후엔 뱃속의 아기가 ‘아들일까, 딸일까’를 점쳤고, 우리가 태어난 후에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작명소를 다녀 왔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풍수지리를 따져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묘터를 잡으려고 온 산을 뒤지고 다니셨다. ‘우리가 과연 대학에 붙을까’를 놓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을 치셨던 어머니. ‘아버지는 이번엔 승진을 하시게 될까?’ 컴퓨터가 손바닥 안에 넣고 인터넷이 전 지구를 하나로 묶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점을 친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연애운을

수시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다가오는 취업을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몇번이고 점에 되묻는다. 잡지나 신문에 실리는 별자리별, 띠별 운세는 빼놓지 않고 꼭 읽어야 할 대목이다. 용하다는 점술가들의 예언이 실현되고, 사회적 혼란을 점으로나마 해결하고자하는 생각들에 의해 점의 대중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혼자서도 집에서 컴퓨터로 사주를 볼 수 있고 커피 한잔에도 운명을 걸들이는 세상...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점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점에 대한 관심은 왜 계속 늘어만 가는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아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관심이 고조되는 세기말적 현상의 단편일까?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기에 너무나 삶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점을 치는 것이 불과 일일점만이라도 생겨난 문화는 아니지 않는가. 더욱이 역학이나 점술 등은 통계화된 자료나 과학적인 발견과 연관되어 지면서 과학으로서의 면모까지 지니는 듯 하다.
그럼 우리는 점에 의해 미리 결정된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졌고, 그 순리대로 살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설득력



▲러시아 점사들의 점술카드

이 없다.
점술이 매력을 지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충고를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점술가들조차도 점을 보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고 현명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한다. 점괘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 애초부터 비관하기보다 다행을 재산을 미리 알고 대안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을 치러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서 결정을 내릴 때, 결과에 관계없이 그 책임을 점쟁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중대사를 앞두고 점쟁이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을 믿고 안심하고 떠나 좋은 점괘를 받고서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아무리 좋은 점괘를 받고, 타고난 관상·수상 등이 좋더라도 이것만 믿고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분명 좋은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취업시즌이 다가오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점을 치는 이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점을 치는 행위나 점을 믿는 사고나 결국엔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결려야 함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최용섭기자)



□르본-사주카페 에로스를 찾아

친구같은 만남에서 운명을 본다



11월 21일 저녁 5시 20분 이대앞. 겨울비 사이로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 쌍의 연인을 따라갔다. 이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이대정문 앞 3층에 위치한 에로스라는 레스토랑 겸 카페.
입구는 다른 레스토랑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에로스 문턱에 들어서서는 순간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쌍쌍의 연인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 한 명이 다른 두명과 마주 앉아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입구를 들어선 후 자리에 앉자 바로 사주를 보는 사람이 따라왔다. 점을 보는 곳이라기에 나이 지긋한 분이냐 이상한 복장을 한 아주머니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점보는 이는 젊고 잘생긴 총각이었다.
“두 분은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죠?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말해주세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생긴 책을 들추며 이것저것 적어내려갔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낯가림이 심하지만 친해지면 우스개 소리를 잘하는군. 부족한 것은 없이 자랐지만 고집이 너무 세” 이어서 같이 온 여자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보며 “친구들이 많지만 자기와 뜻이 맞

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차갑도록 그 사람을 잊어 버리게 문제군” 그는 마치 두사람의 오래된 친구인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곧이어 둘은 궁합을 봐줄 것을 요청했다.
“우연히 만났어, 자연스럽게 말야”라며 “남자는 물이고 여자는 산이군. 궁합은 좋은 편이지만 남자가 보수적인 반면 여자는 개방적이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어. 하지만 여자가 잘 맞추어 가고있군. 궁합은 대부분 속궁합을 말하지만 두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속궁합을 보기는 이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사이야. 결혼은 둘다 일찍 해서는 안되고 쌍둥이를 낳을 팔자인 점” 점괘가 어느정도 들어맞았는지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연인 말고도 에로스 안에는 5쌍 정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혹은 재미있게 카운셀링을 받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두 여자들 사이에 웃음을 지는 모양이다. “어느 쪽으로 원서를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번에는 소신지원을 하도록 해. 그래야만 작년 같은 패배를 보지 않게 돼” 한참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곧바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죠?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자 또 열세 명이 많이 들어진다.
하루에 3백쌍 정도가 찾는 이곳 에로스.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찾아오는 그들은 과연 점이라는 것을 심심풀이로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까. 세기말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특별한 존재나 강한 힘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세기말의 현상이건 아니면 자신의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이건, 심심풀이 이건 간에 서울하늘에 있는 수 많은 점점들은 오늘날 문명성을 이루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일 기자)